



즉시 배포용: 2020 년 2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아일랜드스가 일정보다 일 년 앞서 롱아일랜드로 복귀 예정이라고 발표

아일랜드스는 나소 콜로세움에서 **2020-21** 시즌 홈 경기에 모두 출정하며, 이번 및 다음 시즌의 전 플레이오프 경기 참가

600만 달러 주정부 자금으로 콜로세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아일랜드스는 벨몬트로 이전하기 전 '더 반'에서 파이널 시즌 플레이 가능

새로운 벨몬트 파크 아레나의 건설은 콘크리트 기초 완공 및 구조 철강 약 **20 퍼센트** 완성됨에 따라 빠르게 진행 중

콜로세움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2019-20** 플레이오프 티켓 예매 또는 **2020-21** 정규 시즌 티켓 구매는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아일랜드스(New York Islanders)가 다가오는 2020-21 시즌 동안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NYCB LIVE에서 모든 홈 경기를 치르며 일정보다 일 년 앞서 풀타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스는 이번 및 다음 시즌에 콜로세움에서 홈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정할 것입니다. 건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주정부 자금이 600만 달러가 투입되어 이 팀이 콜로세움에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2019-20 홈 플레이오프 경기 및 2020-21 정규 시즌 경기 입장권은 오늘부터 콜로세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아이슬랜더가 2021-22 전미하키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 시즌 완주를 위한 경기장 건설 및 벨몬트 공원(Belmont Park)에 새로운 근거지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스는 언제나 롱아일랜드의 팀이었으며, 아이코닉한 스포츠 구단이 일 년 일찍 고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해 온 이번 복귀로 아일랜드스는 열광적인 팬 베이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내년에 개장하는 벨몬트 파크 아레나(Belmont Park Arena)에 대한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에너지와 흥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의 공동 소유주인 **Jon Ledec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몬트 파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기 전, 콜로세움에서 다음 시즌 모든 경기를 치를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Cuomo 주지사와 Bettman 커미셔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NHL의 Gary Bettma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미하키리그는 아일랜더스가 2021-22 NHL 시즌 벨몬트 파크 아레나로 이전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은 좇어부의 투자와 시설 업그레이드, 아일랜더스 소유주의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클럽이 나소 콜로세움(Nassau Coliseum) NYCB Live에서 이번 및 다음 시즌 홈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Stanley Cup Playoff) 경기를 비롯해 다음 시즌 모든 정규 시즌 홈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번 시즌 동안 최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아일랜더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바클레이즈 센터(Barclays Center)에 감사드리며, 리그와 클럽이 뉴욕주와 협력하여 이 자랑스러운 구단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신 아일랜더스 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Cuomo 주지사, 아일랜더스, 전미하키리그 등이 수 년간 노력하여 그 결실로 2020년 10월 아일랜더스가 롱아일랜드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팀은 이번 및 다음 시즌 나소 콜로세움에서 홈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2020-21 시즌에는 41개의 홈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정부가 600만 달러 규모의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여 최소 NHL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개선 사항에는 팀 락커룸 개조, 신규 케이블 연결 인프라 및 관련 최신 방송 미디어 장비 설치, 추가 채습 대책 수립, 얼음 공장 예비 시스템 설치, 건물의 난방과 환기, 에어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2017년 12월, Cuomo 주지사는 아일랜더스가 벨몬트 파크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며, 2021-22 NHL 시즌에 롱아일랜드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정부는 아일랜더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 초에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지사는 2018-19 시즌 동안 나소 콜로세움에서 12개의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육 개월이 지난 후, 원래 계획되었던 열두 개의 콜로세움 경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여덟 차례의 콜로세움 홈 경기가 추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벨몬트 파크 아레나 착공식에서 2019-20 시즌 동안 콜로세움에서 전체 홈 경기 중 68 퍼센트에 해당하는 28개의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하며 2019년 9월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아일랜더스가 롱아일랜드로 풀타임 복귀한다는 소식은 새로운 벨몬트 파크 아레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에서 330,000 세제곱야드 분량이 넘는 흙을 파냈으며, 총 15,000 세제곱야드 분량의 콘크리트 기초를 투입하여 프로젝트의 구조용 강철 빔의 약 20 퍼센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SEG Long Island)은 벨몬트 파크의 전기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는 새로운 엘몬트 역(Elmont Station)에서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경기장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새로운 풀 타임 LIRR 통근전용역입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스는 1972년부터 롱아일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경제 개발 기관의 수장이자 평생의 하키 팬으로서 이 구단의 뉴욕 복귀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아일랜드스는 롱 아일랜드에 최신식 영구 보금자리를 건설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개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지원합니다."

민간에서 13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 벨몬트 재개발 프로젝트(Belmont Redevelopment Project)는 25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350,000 평방피트 규모의 상업 빌리지를 만들고, 아일랜드스와 기타 행사를 위한 19,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000개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완공 시 3,2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27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기장, 호텔 및 상업 빌리지의 운영을 통해 연간 8억 5,8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일랜드스 팬들은 [여기](#)에서 콜로세움에서 진행되는 2019-2020 홈 플레이오프 경기 티켓 예약 혹은 2020-21 홈 경기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